

윌리엄 엠프슨 교수와 함께

글 김 종 길 시인



작고한 윌리엄 엠프슨 교수(왼쪽)와 필자

이 사진은 1983년 7월 초순 영국 런던의 햄프스테드 힐 가든즈 1번지에 있는 윌리엄 엠프슨(William Empson, 1906~1984) 교수의 집 뜰에서 찍은 것이다. 그해 필자는 단체여행에 끼여 22년 만에 두번째로 영국을 찾은 것이다. 당시 영미 비평계의 원로였던 엠프슨 교수와도 22년 만의 해후였다. 그와 처음 해후한 것은 1960년 9월 하순 영국 셰필드대학에서인데 그해 필자는 영국문화원 후원으로 한 학년 동안 그의 지도를 받으러 셰필드로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다음해 7월 25일 영국을 떠나 귀국한 뒤 그와 서신 왕래는 있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너무 오랜만에 찾은 런던이어서 며칠 돌아본 뒤 떠날 수가 없어서 필자는 북유럽 여행을 포기하고 보름 동안 런던에 머물면서 여러 번 그를 만나 환담하였다. 그는 20여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극진히 필자를 보살펴주었는데 당시 문예진흥원의 위촉으로 필자가 작성한 한국 한시 100수의 영역초고에 대해 10여 매에 달하는 친필 논평 노트를 만들어주기까지 했다.

그해 7월 런던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더웠다. 엠프슨 교수(그는 1979년 기사작위를 받아 '서(Sir)' 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었다)는 그로부터 9개월 뒤인 1984년 4월 중순에 작고했다. 필자가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취리히로 떠나기 전에 그를 찾아본 것이 그와의 마지막 작별이었다.

1984년 9월부터 한 학년을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보내기 위해 다시 영국을 찾은 필자가 런던에 도착 즉시 찾은 것은 이 뜰이 있는 그의 집이었다. 그의 서거 소식을 듣고 보낸 위문편지에 즉시 회답까지 보내준 그의 미망인은 이 뜰을 말없이 내다보며 망연히 앉아 있는 필자를 도리어 위로해 주는 것이었다. 🌈